

■ 강연 자료

## 지역문학의 현실과 미래\*

김 병 택\*\*

지역문학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적 미래를 모색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문학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의 실상을 먼저 살펴본 후에, 지역문학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문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 이분법적 인식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01년 2월 4일, 제주시 관덕정 앞마당에서 거행된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에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의 해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출범식을 제주지역 문화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 형태로 개최키로 했다.”고 출범식의 의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짝맞은 이 내용 중의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라는 표현은 지역에서

\* 이 글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주최한 전국순회문학강연(2001. 12. 7)에서 강연한 내용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여기에 일일이 다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표현이 최소한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전제, 즉 서울문화는 우월한 문화이고 지역문화는 열등한 문화라는 판단과, 지역문화를 서울문화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만은 밝혀 두는 게 좋을 듯하다. 그 표현이 위의 두 가지의 전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이 아님은, 추진위원회가 올해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 중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서울문화와 지역문화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의 전형적인 사례를 또 한번 겪은 셈이다.

서울문화는 정말 우월한 문화이고 지역문화는 열등한 문화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 이 글의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 글의 의도와 관련되는 물음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간단히 답해 보기로 한다.

문화를, 인간의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월한 문화, 열등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문화를 포함한 모든 지역문화들 사이에는 문화의 우월함과 열등함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양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지역문화의 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관심을 고조시키기만 했을 뿐 실제로 지역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지역문화의 해'인 2001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는 이 때에 새삼스럽게 '지역문화의 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도 지역문화에 대한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 II. 새로운 개념의 설정

지역문학이라는 말은, 광의로는 그 지역의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그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작품 또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의 문학작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물론 그 지역 구성원들의 삶과 정서를 반영한 문학작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적 조건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차적 조건이었다. 당연히, 작가는 그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작품이거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의 문학작품이어야 한다는 지역적 조건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작가의 지역적 조건은, 그 작가의 문학작품을 지역문학으로 인정하는 데에 작용한 중요한 근거였다.

작가·독자·비평가·학자·기자 등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서울문학을 제외한 모든 지역문학은 서울문학에 비해 열등하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될 사실이며, 지역문학이 처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자. 지금은 21세기의 시대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의 활동은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문학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그리고 지역문학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해야 할 때이다. 지역문학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대한 요청일 수 있다.

지역문학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통용되던 지역문학의 개념에는 어떠한 난점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의 지역문학의 지역적 조건은, 그 지역 출신의 작가의 문학작품이거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의 문학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적용한 지역문학의 개념에는 그 지역 출신의 작가나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가, 지역 주민의 삶이나 정서와 무관한 문학작품을 창작할 경우, 그 문학작품도 지역문학에 포함시켜야 하

는 난점이 있다. 지역 구성원들의 삶과 정서를 반영한 문학작품이어야 한다는, 내용적 조건을 적용한 지역문학의 개념에도 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른 지역 출신의 작가가 그러한 문학작품을 창작할 경우, 그 문학작품도 지역문학에 포함시켜야 하는 난점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난점들은 장르 명칭과 그 장르의 작품 내용이 마땅히 빈틈없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문학의 상식으로 보면 치명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난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문학의 개념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문학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지역문학은, 당연히 그 지역의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작가에 의해서만 창작이 가능할 터이므로, 앞에서 열거한 난점들이 일거에 해소된다. 그리고 서울문학과 지역문학의 서열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의 연결 고리도 확보할 수 있다.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과 그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이다.<sup>1)</sup> 또한 정체성은 사람이 자라고 발전함에 따라 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하나가 되는 존재의 공동체 감각을 가진 친근감이다.<sup>2)</sup>

개인 정체성의 개념에 맞추면,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이며, 지역의 특수성과 동궤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학은 역사·지리·언어·민속·가치관·공동체 의식 등을 통한, 지역의 이러한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일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

1) Erik H. Erikson,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1968), p.183.

2) Erik H. Erikson, *Identity : Dimension of a New Identity* (New York : W. W. Norton and Company, Inc., 1974), p. 27.

### Ⅲ.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

‘지역문학은 민족문학이다.’라는 명제가 정합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학의 개념과 민족문학의 개념이 지향하는 바가 동일해야 한다. 지역문학의 개념은 이미 앞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설정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민족문학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민족문학의 개념에는 복잡한 양상이 존재한다. 1910년부터 1948년까지에 이르는 국가 상실기의 민족문학의 개념과, 해방 이후부터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족문학의 개념이 일단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사이에는 공통점도 분명히 있다. 어느 시대의 민족문학도 그 시대가 다루어야 할 현실적, 역사적 경험을 다루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민족문학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면, 일단 민족문학의 개념에 내재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역문학의 개념 쪽에는 약간의 문제가 남는다. 정체성과 특수성만을 드러내는 지역문학에는 민족문학을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지역문학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유지하고자 했던 현실적, 역사적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당위적 조건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과 지역 구성원을 포함하는 민족의 외연이 결합될 때에 지역문학은 진정한 민족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견해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지역문학은 한 지역의 문학적 총량이 아니다. 지역문학은 민족문학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식이며 역사적인 과정인 것이다. 생존의 정체성을 확인 받고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언어예술의 방식이 지역문학이다. 다시 말해서 21세기적 삶의 세 범주는 세계체제, 민족국가, 지역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인데 민족국가의 약화와 세계체제의 강화에서 삶의 정체성을 보장하며 언어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지역문학인 것이다.<sup>3)</sup>

위의 인용문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은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문학이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보편성을 띠고 있는가의 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그 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을 띠고 있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동시에 지역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이기도 하다.)의 전형적인 예이다.

#### IV. 지역문학의 하위개념—4·3문학

지역문학의 개념이 위에서 말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경우, 소재를 중심으로 한 하위개념의 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문학의 하위개념인 4·3문학의 경우를 들어 그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4·3문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3문학에 대해 가지는 물음은 세 가지이다. 그것의 첫째는 4·3문학은 존재하는가이고, 둘째는 4·3문학이 존재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축적되어 있는가이며, 셋째는 4·3문학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이다.

첫째의 물음은 4·3문학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는 4·3예술, 또는 4·3문학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내포되어 있다. 장르를 장르類와 장르種으로 구분할 때 4·3문학은 당연히 장르種에 속한

3) 김승환, 「민족문학과 지역문학」홈페이지: <http://trut.chungbuk.ac.kr/~whan86/cr17.htm>

다는 것을 알면서도, 4·3문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짐짓 4·3문학이 장르種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싶어한다. 인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말하면, 장르種은 사건·배경·주체에 따라, 또는 독자의 '기대의 지평'에 부합되는 형식·내용의 지배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6·25 문학·분단문학·4·19문학이 그러한 것처럼 4·3문학도 그에 따라 결정된 문학의 엄연한 장르로 존재할 수 있다.

둘째의 물음은 4·3문학 작품의 분량에 대한 물음이다. 1988년에 전예원에서는 『4·3도 유채꽃』이라는 소설 선집을, 제주작가회의에서는 1998년에 4·3시 선집 『바람처럼 까마귀처럼』을, 올해(2001년)에는 4·3소설 선집 『깊은 적막의 끝』을 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시인·작가들이 개인적으로 발간한 시집,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모두 합하면 시의 경우 수백 편, 소설의 경우 수십 편을 넘는다. 『4·3문학 전집』을 간행해도 좋을, 아니 당연히 간행해야 할 정도의 분량이다. 4·3을 바라보는 시각도 수난사적 시각, 항쟁사적 시각 등 다양하다. 4·3문학 작품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셋째의 물음은 4·3문학의 가치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 속에는, 4·3문학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대답을 기대하는 심리가 들어 있다. 4·3문학은 鑑賞의 대상인 동시에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4·3문학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문학이라는 인식은 4·3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이 그 사건을 다룬 문학 연구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된다면, 그것은 문학 연구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라 할 만하다. 4·3문학은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4·3문학에 대한 위의 세 가지 물음이, 겉으로는 4·3문학에 대한 진지한 물음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3에 대한 금기가 전제되어 있어서 진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4·3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역적인 이유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 V. 지역문학의 발전<sup>4)</sup>을 위하여—마무리를 대신하여

지역문학이 발전되지 않고서도 지역문학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오늘날의 지역문학은 특히 그렇다. 이 부분에서는 이 글의 마무리를 대신하여 지역문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지역의 작가들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작품의 창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작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작가들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심지어 지역의 정체성·특수성과 무관한 작품만을 발표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지역문학이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학단체가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문학의 대중화 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영상매체가 우리 생활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지역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운동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대중과 함께 하는 시 낭송회, 찾아가는 문학강좌, 문학의 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제주작가회의 경우는 1998년 2월 14일에 창립된 이래 약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문학잡지 『제주작가』(1~6호)를 반년간지로 발간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4·3시 선집(1998. 4) 발간·4·3소설 선집(2001. 4) 발간·4·3문학제(4회)·문예창작 교실(4회)·시민과 함께 하는 시 낭송회(4회)·제주 청소년 문학한마당(2회)·찾아가는 문학강좌(9회) 등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학자와 비평가가 지역문학을 연구하거나 비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4) 여기에서의 '발전'이라는 말은, 한 지역문학이 다른 지역문학들 중의 하나인 서 울문학을 닮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한 지역문학이 지역문학다운 지역문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문학이 학문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소홀히 취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필자가 지역문학 연구나 비평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김영화 교수의 제주문학에 대한 연구논문들과, 경남 지역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지역문학연구』에 수록된 글들 말고는 별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역문학에 대한 강좌는,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지역문학연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점<sup>5)</sup>을 통해 금방 확인된다. 이것은 앞으로 각 지역 대학이 지역문학 연구소를 세워야 할, 그리고 지역문학 강좌를 개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의 작가·지역의 문학 단체·학자·비평가가 지역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지역문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지 않는다면, 지역문학의 미래는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역문학의 미래가 없는 것은 한국문학의 미래가 없는 것과도 같다.

5)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1998, 2), p. 122. 참조.